

정례브리핑

2021.12.3.(금) 10:30, 차덕철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세요? 금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배포해드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탈북민들의 취업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오늘 오후에 한전산업개발과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탈북민 맞춤형 직무 교육,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컨설팅 등 탈북민들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업무협약이 탈북민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통일부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특별한 외부일정 없이 부내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보실 계획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오늘 오전 10시 한국법제연구원과 통일과 북한법학

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통일부와 법제처가 후원하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식에 참가하여 축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관계의 제도화와 남북합의를 주제로 여러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모두에 준비한 말씀을 다 드렸고요. 오늘은 사전에 질문 주신 부분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보도자료 저는 여기 홈페이지에서 봤는데요. 지금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이것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탈북자단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거든요. 2019년도에 통일부하고 같이 탈북자들의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 한 열 가지 조항으로 합의하고 통일부가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통일부가 탈북자단체들과는 전혀 소통도 없고 그냥 그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행동도 없고 이렇다고 탈북자단체 쪽에서 불만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산업개발하고는 이렇게 하는데 탈북자들 단체 중에서 정착 지원한 단체들, 이런 쪽하고는 같이 업무를 협의한다든가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 것입니까?

<답변> 일단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항상 탈북민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

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단체와의 협의도 충분히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여쭙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한테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